# ‘등(等)’의 쓰임에 대한 연구*

김 혜 영**

## I. 서 론

‘등(等)’은 현대국어 문어체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이며, 일반적으로 의존명사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 그러나 그 쓰임을 보면 단순히 의존명사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1) ㄱ. 울산, 구미, 창원 **등**과 같은 공업도시
ㄴ.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 걸친 개혁
ㄷ. 강과 도로가 빠져있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지도[2]

(1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명사들과 마찬가지로 조사가 자유롭게 결합하고 있다. 그러나 (1ㄴ)의 경우에는 ‘등’이 이끄는 절이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그리고 (1ㄷ)의 경우에는 ‘등’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도 없고, ‘등’이 이끄는 절이 수식하는 명사를 찾을 수도 없다. 따라서 (1ㄷ)의 경우에는 ‘등’이 단순히 의존명사로 쓰인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본고는 이러한 ‘등’의 여러 가지 쓰임과 각 쓰임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

* 이 논문은 2005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사과정 졸업논문 발표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과정 4년

1) ‘의존명사’와 같은 의미의 용어로 ‘불완전명사, 형식명사, 안옹근이름씨’ 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의존명사’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예문은 국립국어원(1999: 1758)에서 가려 본 것이다.

보려는 시도이다.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등'의 쓰임을 크게 의존명사와 연결기능의 접어구성으로 보고 그 둘의 쓰임을 각각 검토한 후 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본고의 Ⅱ장에서는 기존의 논저에서 설명하고 있는 '등'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의존명사 '등'의 의미와 쓰임을 보인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보문소와 의존명사 '등'이 연결기능의 접어구성이 되는 문법화 제2단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결기능의 접어구성 '-는 등'의 의미와 쓰임을 설명할 것이다.

본 논의에서 사용되는 문법화의 과정에 대한 설명과 용어는 안주호(1997)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등'의 쓰임은 언론문장과 여섯 개 사전의 예문에 나타나는 '등'의 쓰임을 분석한 것이다.[3] 특별히 대상을 언론문장으로 삼은 것은 '등'이 문어체에서 자주 쓰이며, 특히 언론문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예문들은 여기에서 추출한 것이다.

## Ⅱ. 기존 논저에 나타나는 '등'의 특징

기존의 문법서에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명

3)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등'의 쓰임을 분석하기 위해 2005년 8월 13일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장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모인 문장은 총 150개이다. 그리고 예문을 수집하는 데에 쓰인 여섯 개의 사전은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1999), 두산동아.
『금성판 국어대사전』, 김민수·고영근·이승재·임홍빈(1991), 금성출판사.
『새 우리말 큰사전』, 신기철·신용철(1975), 삼화출판사.
『연세 한국어 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두산동아.
『국어대사전』, 이희승(1961), 민중서관.
『새한글사전』, 허웅(1965), 한글학회.
신문에서 수집한 문장이 본고의 예문으로 사용될 경우 내각주에 문장이 나타나 있는 신문의 첫 글자와 지면을 적어 출처를 표시하였다(예: 조선일보 16면에 나타나 있는 문장의 경우 (조 16)으로 표시).

사의 목록에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문법서의 수도 적다. 그러나 몇몇 문법서에서 ‘등’을 명사의 특정한 부류에 포함시켜 그 특징을 설명한 것이나 ‘등’과 공기관계에 있는 요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4)]

문법서에 나타나는 ‘등’에 대한 언급 중 필자가 확인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정렬모(1946)에 나타나 있는 ‘등’에 대한 서술이다. 정렬모(1946: 66)에서는 ‘형식뜻뿐 이오 실질뜻이 없는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를 ‘형식명사’라고 하고, ‘등’을 형식명사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정렬모(1946: 208)에서는 ‘얹침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등’이 다른 형식명사들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5)]

> 형식명사는 너른뜻 인 상대명사의 한가지 이다. 실질개념을 가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속의 얹침말을 취하여 얹침받는말이 될 필요가 있다. (중략) “들”“등” “등등”“등지”“등물”“씩”등, 이들 형식 명사는 실질말을 취하여 형식말이 되기 때문에 얹침말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한편, 사전에서 일반적으로 ‘등’의 유의어로 언급되는 ‘들’, ‘등’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등등’, ‘등’과 다른 한자어가 결합한 ‘등지, 등물’ 등도 ‘등’과 같은 쓰임을 가진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 중 ‘등물’은 다른 문법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1964a: 157~161, 1964b: 207~211)에서는 불완전명사의 종류와 쓰임을 열거한 불완전명사 일람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들, 등등, 등지’는 포함되어 있고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등등, 등지’의 ‘등’이 의존명사 ‘등’의 의미와 상통하는 바가 있음을 생각해볼

---

4) 이후에 이 장에서 사용되는 ‘형식명사, 불완전명사’라는 용어는 ‘의존명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각 논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적은 것이다.

5) 정렬모(1946: 171~172)에 따르면 ‘얹침관계’란 ‘사껀의 관념이 속성의 개념과 본체의 개념과의 둘에 나뉘어 가지고 그것이 다시 어울리어 속성의 개념이 본체의 개념의 몸에 종속한 경우에 두 말의 관계’를 말하며, 전자를 ‘얹침말’, 후자를 ‘얹침받을 말’이라 한다. ‘얹침관계’의 예로 ‘높은 산, 먼 시골, 가는 사람, 그 사람, 두 말, 바다의 복판, 새 나라, 풋 나물, 어느 곳’ 등이 있다.

때 ‘등등, 등지’가 불완전명사 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다면 ‘등’도 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1964a: 157~161, 1964b: 207~211)에서는 ‘등’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이후, 고영근(1989: 63~111)에서는 이제까지의 한국어 문법서와 논문, 사서류에서 나타나는 형식명사를 조사하여 열거하고, 그들 중에서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형식명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사 57개를 다시 보였는데, 여기에는 ‘들, 등(등), 등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6] 또한, 고영근(1989: 63~111)에서는 ‘등’을 관형사적 요소들과의 합성성에서 특수성을 띤 것으로 분류하고, ‘등’은 체언 아래 쓰임이 더 보편적이나 관형사형 ‘-는’과 통합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사와의 합성성에서는 ‘등’을 보편성을 띤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고영근(1989: 63~111)에서는 ‘등’은 후행형식과의 통합은 보편성을 보이지만 선행형식과의 통합은 제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선행형식과의 통합이 보편적이면 후행형식과의 통합도 보편적인 형식명사들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정수(1994: 399~419)에서는 ‘등’을 ‘전용된 의존명사’와 달리 의존명사의 구실만 보이고 다른 자립명사와는 넘나들거나 겸용되지 않는 순수 의존명사로 분류하고 그 선행 성분과 후행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등’의 선행 성분으로 동사성 용언의 관형사형인 ‘는’, 명사형 ‘기’, 명사, 대명사가 올 수 있고, 후행 성분으로는 ‘이, 을, 에(게), 에(게)서, 로, 로(써), 밖에, 이다, 동사구/절’ 등이 다양하게 어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정수(1994: 399~419)에서도 고영근(1989)과 마찬가지로 여러 관형어 형태와 두루 어울릴 수 있는 의존명사의 경우, 여러 후행 성분들과 두루 어

6) 고영근(1989: 63~111)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식명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ㄱ. 의존성을 띨 것
ㄴ. 통합 관계에 제약이 있을 것
ㄷ. 관형사형에 붙을 것
ㄹ. 조사를 취할 것
그러나 ‘등, 등지’의 경우 형식명사가 관형사형 아래 쓰인다는 점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울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등’은 선행 성분의 제약이 많음에도 후행 성분이 두루 어울릴 수 있는 예외로 처리하고 있다. 이후 서정수(1996: 465~486)에서는 서정수(1994)의 견해를 수정하여 ‘등’의 선행 성분에 ‘ㄹ’, 동사성 용언의 ‘ㄴ’, 형용사나 지정사에 쓰이는 관형사형 ‘ㄴ’을 포함시켜 그 목록을 확대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기존의 문법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등’의 특징들은 몇 가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이들은 ‘등’을 의존명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부류(형식명사, 불완전명사)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로, ‘등’의 선행 요소에 대한 제약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문법서들은 의존명사의 쓰임이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쓰임에 대해서는 포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등’에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요소에 대한 제약을 언급할 때에도 ‘등’의 쓰임에 따라 달라지는 제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7)]

한편, 이러한 연구들 외에도 ‘등’의 의미와 쓰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가 많이 있다. 먼저, 이주행(1987), 이병모(1995), 안효경(1999), 김미숙(2002), 황경수(2004) 등에서는 ‘등’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주목하여 의존명사 ‘등’의 선·후행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주행(1987: 148~150)에서는 ‘등’이 근대국어에서부터 의존명사로 기능하였다고 지적하고, 다만 근대국어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와 공기하지 않았으나 현대국어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명사와 함께 ‘등’의 선행 요소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등’은 어떤 대상을 낮추어 일컫거나 예사로 일컫는 말이며, 그 원형적 의미는 ‘낮추어 일컫는 어느 대상’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병모(1995: 178~179)에서는 ‘등’의 의미는 ‘선행문이거나 선행문 이외의 열거된 상황, 형편, 처지’이며 선행 요소로 관형사형 어미 ‘-는’, ‘-ㄴ’, ‘-ㄹ’뿐만 아니라 ‘-던’도 결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고, 안효경(1999: 164~166)에서는 ‘등’이 여러 동등의 항목을 나열한 뒤에 쓰이며 ‘등’이 지시하는 것은 앞에 나

7) 이 외에도 김민수(1955: 170, 1960: 193)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존명사의 목록에서 ‘등(等)’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등(等)’이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의존명사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급’의 의미로 쓰이는 ‘등(等)’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와 있는 항목 외에도 더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하고, ‘등’은 명사와 관형사형 어미 ‘-는’만을 선행 성분으로 취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김미숙(2002: 46~47)에서는 ‘등’의 의미를 ‘낮추어 일컫는 어느 대상’, ‘예사로 일컫는 사물’로 분석하고, ‘등’의 선행 요소로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명사, 후행 요소로는 격조사 중에서 일반적으로 목적격조사, 처소격조사, 계사 ‘이다’가 있으며 후행 요소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황경수(2004: 251~252)에서는 ‘등’의 원형적 의미는 ‘얕잡아 일컫는 어떤 대상’이고 확장적 의미는 ‘얕잡아 일컫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짐승, 낮추어 일컫는 행위’이며, ‘등’이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등’의 의미와 쓰임, 특히 ‘등’과 공기관계에 있는 요소들을 밝히는 것에는 충실하였으나, 그 성격이 서로 다른 ‘등’의 쓰임을 파악하지 못하여 쓰임에 따라 ‘등’과 공기관계에 있는 요소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밖에 ‘등’을 문법화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안주호(1997)에서는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를 의존명사화 단계인 문법화 제1단계와 접어화 단계인 문법화 제2단계, 그리고 어미·조사·접미사화 단계인 문법화 제3단계로 나누고, 근대국어에서 자립명사로 쓰일 수 있었던 ‘등’이 의존명사화하여 의존명사 ‘등’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채숙희(2002)에서는 ‘-ㄴ 등’을 연결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등’이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나, 보문이 선행할 경우 관형격조사만이 결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ㄴ 등’을 선행절이 후행절의 예시가 되는 관계로 연결하는 연결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구성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격이 서로 다른 ‘등’의 쓰임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안주호(1997)은 ‘등’의 문법화를 의존명사화까지만 설명하고 있어, 의존명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등’의 쓰임을 설명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등’의 의존명사화 이전 단계라고 지적하고 있는 자립명사 ‘등’은 ‘등급’의 의미를 가지는 ‘등’으로 의존명사 ‘등’과 그 의미가 다르고, 그 예도 관형어와 함께 쓰인 것만을 보이

고 있어 자립명사의 예라고 보기 힘들다. 반면, 채숙희(2002)는 연결어미 기능을 하는 ‘등’의 쓰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으나, 연결어미 기능을 하는 ‘등’의 쓰임과 의존명사 ‘등’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위의 언급된 논저들은 ‘등’의 의미,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 문법화 등과 같은 ‘등’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의 의미와 쓰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등’의 다양한 쓰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을 단일한 것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그 특징에 따라 ‘등’의 쓰임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그 쓰임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의 Ⅲ장과 Ⅳ장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등’의 쓰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쓰임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 III. 의존명사 ‘등’의 의미와 쓰임

의존명사는 반드시 그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명사이다.[8] 그리고 의존명사는 실질적이고 개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형식적이며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의존명사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문맥에 따라 주어진 자립명사의 의미에 대응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ㄱ. 나는 맛있는 **것**만 먹는다.
ㄴ. *나는 **것**만 먹는다.
ㄷ. 나는 사과 중에서도 맛있는 **것**만 먹는다.

(2)의 예에서 ‘것’은 (2ㄴ)과 같이 관형어 없이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명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ㄱ)에서 ‘것’은 ‘음식’의 의미이나 (2ㄷ)에서는 ‘것’의 의미가 ‘사과’이다.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의존명사가 형

8) 이후로 본 장에서 전개되는 의존명사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논의는 이익섭·채완(1999: 135~139)을 참고하였다.

식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또 의존명사는 이러한 의미상의 제약뿐만 아니라 분포상의 제약도 가진다. 항상 관형어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문장의 첫 머리에 올 수 없으며, 대체로 제한된 격조사와만 결합하고, 그 앞에 오는 관형형의 어미나 상위문의 서술어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현대국어의 '등'은 기본적으로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의존명사이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며, 분포상의 제약이 있어 앞에 오는 관형형의 어미에 제약이 있다. 그러나 '등'은 그 의미가 일반적인 의존명사들과는 차이가 있다. 대다수의 의존명사들이 문장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드러나는 반면, '등'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ㄷ)의 예에서 '것'은 '사과'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나, '등'은 어떤 문장에서도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를 다른 자립명사의 의미로 대체시킬 수 없다.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의존명사 '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 「2」 (명사 뒤에 쓰여) 열거한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내거나 그것들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이를 통해 볼 때에 현대국어의 '등'의 의미는 크게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1」의 의미)과 앞에 열거한 대상들이 복수임을 표시하는 것(「2」의 의미)으로 나눌 수 있다.[9)]

현대국어에서 의존명사 '등'의 쓰임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로, [[NP#등]조사]의 쓰임이 있다. 이는 체언의 일반적인 쓰임과 같다.

(3) ㄱ. 처음엔 한국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군무원 및 종군자의

9) 이현희(1994: 47)에서는 전자의 의미를 '그 외의 나머지[等所餘]를 가리키는 것', 후자의 의미를 '벌여놓은 것[等所列]을 다 가리키는 것'이라 하고 있다.

영현을 모셨으나, 65년 3월30일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국가원수, 애국지사, 순국열, 국가유공자, 경찰관, 향토예비군 **등**이 추가로 안장됐다. (한 3)

ㄴ. 글이나 그림을 새긴 색색의 티셔츠와 가방 **등**을 팔고 있는데 1년에 약 3만장의 티셔츠가 팔린다. (조 13)

ㄷ. 4대 궁과 종묘, 능묘 **등**의 왕실 유물들을 집대성한 궁궐 문화의 요람이다. (한14)

ㄹ. 입국 허가가 내려진 인물은 독일 지역에서 유신 반대 활동을 벌인 이영빈(79)·김순환(77) 목사 부부와 동백림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이응로 화백의 조카 이희세(73·프랑스 거주)씨 **등**이다. (조 5)

이 때에 ‘등’은 후행하는 조사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어 ‘-이다’를 포함한 여러 조사들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둘째로, [[NP1#등]NP2]의 쓰임이 있다.

(4) ㄱ. ‘자살설’ ‘은둔설’ **등** 의견이 분분한 노량해전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드라마에선 어떻게 그려지나. (조 25)

ㄴ. 고추, 토마토, 오이, 감자, 상추, 깻잎, 케일, 레드 피커리, 브로콜리, 야콘, 오클리, 모로헤이야 **등** 과채류를 하우스나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다. (조 12)

ㄷ. 정부는 12일 이들 정치인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과 공안·선거사범 **등** 1만4천여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한 1)

(4)의 예를 보면 [NP1#등]이 NP2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P1#등]NP2]에 쓰이는 [NP1#등]을 관형어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삼촌’, ‘탬버린 소리’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명사(구, 절)는 다른 명사(구, 절) 앞에서 흔히 후행하는 명사(구, 절)를 수식할 수 있으므로, ‘등’이 의존명사로서의 쓰임에서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

(4)의 예 중에서도 (4ㄱ), (4ㄴ)과 (4ㄷ)은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4ㄱ)과 (4ㄴ)은 ‘등’과 NP2 사이에 조사 ‘-의’를 삽입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반면, (4ㄷ)은 ‘-의’를 삽입하면 문장이 부자연스럽다.

(4) ㄱ′. ‘자살설’ ‘은둔설’ **등**의 의견이 분분한 노량해전에서의 죽음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드라마에선 어떻게 그려지나.
ㄴ′. 고추, 토마토, 오이, 감자, 상추, 깻잎, 케일, 레드 피커리, 브로콜리, 야콘, 오클리, 모로헤이야 **등**의 과채류를 하우스나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다.
ㄷ′. *정부는 12일 이들 정치인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과 공안·선거사범 **등**의 1만4천여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등'이 조사 '-의'와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등'에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NP1과 NP2의 의미에 많은 영향을 받는 듯 보인다. 그러나 '등'에 후행하는 NP2가 수사와 단위명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에 조사 '-의'가 결합하는 것이 어색하다.

(5) ㄱ. 올 7월말 기준으로 국립현충원에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 국가원수 2위와 임정요인 18위, 애국지사 209위, 국가유공자 63위, 장군 355위, 경찰 812위 **등** 5만4456위가 안장돼 있다. (한 3)
ㄱ′. *올 7월말 기준으로 국립현충원에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 국가원수 2위와 임정요인 18위, 애국지사 209위, 국가유공자 63위, 장군 355위, 경찰 812위 **등**의 5만4456위가 안장돼 있다.
ㄴ. 남·북·해외 대표단과 참관단 **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행사에선 각급 대표단의 기조연설 뒤 남·북·해외 대표가 각 1명씩 참여해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7천만 겨레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게 된다. (한 5)
ㄴ′. *남·북·해외 대표단과 참관단 **등**의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행사에선 각급 대표단의 기조연설 뒤 남·북·해외 대표가 각 1명씩 참여해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7천만 겨레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게 된다.

(5ㄱ)과 (5ㄴ)은 모두 '등'에 후행하는 NP2로 수사와 단위명사가 온 경우이다. 이 경우 '등' 뒤에 조사 '-의'를 결합시킨 (5ㄱ′)과 (5ㄴ′)은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NP1#등]NP2]에서 NP2가 수사와 단위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는 일반적인 수량사구와 유사한 점을 보인다. 이 경우, [NP1#등]은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므로 [[NP1#등]NP2]는 [NP#수사#단위명사]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생 한 명'과 같은 수량사구와 동일한 구조이다. 이러한 수량사구도 '학생의 한 명'과 같이 조사 '-의'가 결합되면 의미가 바

뀌거나 문장이 어색해진다.

셋째로, [[-는#등]NP]의 쓰임이 있다.[10] 이것은 [[NP1#등]NP2]의 쓰임에서 NP1이 ‘-는’의 형태를 가진 관형절로 대체된 것이다. [-는#등]이 후행하는 NP를 수식하는 것 역시 두 번째 쓰임과 같다.

(6) ㄱ. 청와대는 12일 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 출신인 천호선 국정상황실장과 이호철 제도개선 비서관을 각각 의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에 임명하는 **등** 1~2급 비서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조 2)
ㄴ. 전투기 오폭과 불발탄 폭발 등으로 인명피해와 가옥이 파손되는 **등** 피해도 계속됐다. (한 10)

(6)의 예는 [[-는#등]NP]의 쓰임을 보여주는 문장들이다. 이 경우에도 ‘등’에 조사 ‘-의’가 결합할 수 있다.

(6) ㄱ′. 청와대는 12일 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 출신인 천호선 국정상황실장과 이호철 제도개선 비서관을 각각 의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에 임명하는 **등**의 1~2급 비서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ㄴ′. 전투기 오폭과 불발탄 폭발 등으로 인명피해와 가옥이 파손되는 **등**의

---

10)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에 선행하는 관형절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주행(1988: 158~149), 황경수(2004: 251~252), 서정수(1994: 408) 등에서는 ‘등’이 관형사형 어미 ‘-는’과만 결합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서정수(1996: 473)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는’, ‘-ㄴ’, ‘-ㄹ’이 모두 결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병모(1995: 178~179)에서는 ‘-는’, ‘-ㄴ’, ‘-ㄹ’뿐만 아니라 ‘-던’도 결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병모(1995: 178)에서 제시하고 있는 ‘-ㄴ’, ‘-ㄹ’, ‘-던’과 ‘등’이 결합한 예는 다음과 같다.
ㄱ. 부모가 꼭 결혼한 자녀에게까지 돈을 대주고, 교육을 시키고, 보호해야 할 등의 임무가 있을까?
ㄴ. 그가 지난날 국고를 횡령하고 사기를 치고 공문서를 위조했던 등의 사실들이 이제는 탄로가 났다.
ㄷ. 그가 지난날 국고를 횡령하고 사기를 치고 공문서를 위조한 등의 사실들이 이제는 탄로가 났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일 뿐만 아니라, 실제 ‘등’의 쓰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예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등’에 선행하는 관형절은 ‘-는’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해도 계속됐다.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쓰임을 보이는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등'은 문어체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한 문장에서 '등'이 두 번 이상 사용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7) ㄱ. ?한편, 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조 히데키 당시 총리 **등** 에이급 전범 14명의 위패 **등** 246만6532명의 전몰자가 합사돼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2만118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 2)
ㄴ. ?이 명단에는 인촌 김성수의 동생인 김연수 당시 경성방직 사장 **등** 거물급 친일파들을 비롯해 △문명기·최창학 **등** 광산 부호 △민영휘(휘문고 설립자) 일가 **등** 일제 귀족 가문 △경남 진주 부의 정태석 **등** 대지주 **등**이 포함돼 있다. (한 1)
ㄷ. 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는 조선, 경성, 경성제일, 조선경북, 경기시흥 **등** 지역명칭을 붙인 비행기들이 많았고, 심지어 조선장로호 **등** 교단이름, 문명기 **등** 개인 이름을 비행기에 새겨넣기도 했다. (한 1)

(7)의 예는 모두 '등'이 한 문장에서 두 번 이상 사용된 경우이다. 그러나 (7ㄱ)이나 (7ㄴ)과 같이 [[NP1#등]NP2] 뒤에 다시 '등'이 오는 경우는 문장이 어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IV. 문법화를 겪은 '-는 등'

### 1. 보문소와 의존명사 '등'의 접어화

안주호(1997: 39~54)에서는 보문소와 의존명사가 재분석과 유추를 거쳐 연결기능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문법화 제2단계라고 설명한다. '연결기능의 접어구성'이라 함은 이러한 문법화 제2단계의 형태·통사적 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11] '등'의 경우, 안주호(1997)에서는 제2단계에 해당하는

11) 안주호(1997)에서는 보문소와 의존명사가 통합되어 연결어미로 그 지위가 바뀔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문법화 제3단계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 ]ㄹ#ㅅ]이

문법화를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등’ 역시 이러한 문법화 제2단계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다음을 보자.

(8) ㄱ.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는 **등**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한 8)
ㄴ. 이스라엘 주민들의 정착촌 철수를 앞두고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10일부터 비상 태세에 돌입하는 **등** 가자지구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한 18)

(8)의 예를 보면 ‘-는’이 ‘등’ 앞에 쓰여 의존명사의 쓰임 중 [[-는#등]NP]와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는#등]이 수식하는 NP가 결여되어 있다. (8ㄱ)의 경우 ‘-는 등’이 ‘많은 주민들’을 수식한다고 볼 수 없으며, (8ㄴ)의 경우 역시 ‘-는 등’이 ‘가자지구’를 수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는 등’에서 ‘등’이 의존명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는 등’ 전체가 연결기능의 접어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12] 즉, 보문소 ‘-는’과 의존명사 ‘등’의 결합이 연결기능의 접어구성 ‘-는 등’이 되는 문법화 제2단계가

---

니] > [[ ]ㄹ시니]’(안주호 1997: 162)가 있으며, 이들 중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더 이상 의존명사를 추출해낼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의존명사가 개입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통사적인 구성이었지만 재분석과 유추, 그리고 융합의 과정을 겪음으로 해서 형태적 구성으로 되어 갔다. 그러나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법화 제2단계에 머무르면서 연결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연결기능의 접어구성’이라 함은 이러한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법화 제2단계의 형태·통사적 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접어(clitic)’란 문법적인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형태·통사적 구성으로 완전한 문법소로 매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안주호(1997)에서는 문법화 제2단계의 형태·통사적 구성을 ‘연결기능을 하는 접어구성’이라 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와 같은 의미로 ‘연결기능의 접어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2) 안주호(1997: 165)에서는 연결기능의 접어구성이 가지는 형태들의 형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가) [[ ]ㄹ/ㄴ#의존명사]
(나) [[[ ]ㄹ/ㄴ#의존명사]조사]
(다) [[[ ]ㄹ/ㄴ#의존명사]용언 활용형]
(라) [[ ]기/음#조사, 용언 활용형]
이러한 형태 구분에 따르면 ‘-는 등’은 (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어난 것이다. 이 때의 '-는 등'은 연결기능의 접어구성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과 일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3]

첫째로, 형태통합면에서 볼 때, 구성체 내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다. 다음 예를 보자.

(8) ㄱ.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는 **<u>등</u>**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ㄱ′.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릴 **<u>등</u>**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ㄱ″.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린 **<u>등</u>**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위의 (8)에 쓰인 '-는 등'의 '등'은 그 선행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시킬 수 없다. (8ㄱ′)이나 (8ㄱ″)과 같이 '-는 등'의 '-는'을 다른 어미로 대체시킨 문장은 어색하다. 또한, 후행의 조사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는 등'의 경우는 어떠한 조사도 후행할 수 없다.

둘째로, 통사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등'의 경우는 '-었-', '-겠-'이 선행절의 서술어에 결합될 수 없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Ⅳ.2.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셋째로, 이들은 고유한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구성 사이에 어떠한 요소도 개재될 수 없다. '-는 등' 역시 그 사이에 어떠한 요소도 끼어들 수 없다.

이와 같이 '-는 등'은 연결기능의 접어구성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는 등'의 '등'은 그것의 유의어들과 대체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의존명사로 쓰이는 '등'과는 다른 특징이다.

(9) ㄱ. 글이나 그림을 새긴 색색의 티셔츠와 가방 **<u>등</u>**을 팔고 있는데 1년에 약 3만장의 티셔츠가 팔린다.
ㄴ. 글이나 그림을 새긴 색색의 티셔츠와 가방 **<u>따위</u>**를 팔고 있는데 1년에

13) 연결기능의 접어구성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은 안주호(1997: 161~168)에서 언급된 것이다.

약 3만장의 티셔츠가 팔린다.
ㄷ. 글이나 그림을 새긴 색색의 티셔츠와 가방 **들**을 팔고 있는데 1년에 약 3만장의 티셔츠가 팔린다.

위의 (9)의 예에서 나타나는 ‘따위, 들’은 사전에서 ‘등’의 유의어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다. ‘등’이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9)의 경우와 같이 ‘등’이 유의어들로 교체될 수 있다. 그러나 연결기능의 접어구성 ‘-는 등’의 ‘등’을 그것의 유의어들로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문장이 어색해진다.

(10) ㄱ.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는 **등**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ㄴ.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는 **따위**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ㄷ.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는 **들**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10)의 예들은 접어구성 ‘-는 등’의 ‘등’을 그것의 유의어들로 교체시킨 것이다. 이렇게 연결기능의 접어구성 ‘-는 등’의 ‘등’을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로 교체하였을 때 의존명사 ‘등’과 달리 문장이 어색해지는 것은 의존명사들마다 문법화의 정도가 달라서 ‘등’을 다른 의존명사로 교체할 경우 접어구성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의 유의어 중 ‘등’이 반복되어 만들어진 ‘등등’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 ㄱ. 글이나 그림을 새긴 색색의 티셔츠와 가방 **등등**을 팔고 있는데 1년에 약 3만장의 티셔츠가 팔린다.
ㄴ. ‘자살설’ ‘은둔설’ **등등** 의견이 분분한 노량해전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드라마에선 어떻게 그려지나.
ㄷ. 전투기 오폭과 불발탄 폭발 등으로 인명피해와 가옥이 파손되는 **등등** 피해도 계속 됐다.
ㄹ.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는 **등등**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위의 예문에서 (11ㄱ), (11ㄴ), (11ㄷ)은 의존명사 '등'을 '등등'으로 대체한 것이고, (11ㄹ)은 연결기능의 접어구성 '-는 등'의 '등'을 '등등'으로 대체한 것이다. (11)의 예문 모두 '등'을 '등등'으로 대체해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14]

## 2. 연결기능의 접어구성 '-는 등'의 의미와 쓰임

연결기능의 접어구성 '-는 등'은 그 문법적인 기능이 연결어미와 유사하다. 따라서 '-는 등'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 중에서 '-는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범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보이는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익섭·채완(1999: 378~410): 나열, 대조, 시간, 인과, 양보, 조건, 목적
남기심·고영근(1993: 392): 나열, 동시, 상반, 조건이나 가정, 이유나 원인, 지속, 다른 일로 바뀜, 보태지거나 더해감, 의도, 목적, 어느 쪽이나 상관 없음, 반드시 그래야 함, 배경, 정도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연결어미 의미 범주에서는 '-는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범주를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는 등'의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 범주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는 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하였던 연결기능의 접어구성 '-는 등'의 예를 보자.

(11) ㄱ.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는 **등**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14) 이처럼 '등등'은 '등'과 그 기능 및 쓰임이 유사하며 그 형태도 '등'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등'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의존명사의 반복으로 새로운 의존명사를 형성한 경우는 매우 독특한 경우이므로, '등등'에 대한 연구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ㄴ. 이스라엘 주민들의 정착촌 철수를 앞두고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10일부터 비상 태세에 돌입하는 **등** 가자지구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ㄷ. 강과 도로가 빠져있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지도

(11ㄱ)에서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는 등’은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를 상세화하고 있다. 즉, 주민들이 현실을 인정하고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고 있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1ㄴ)의 경우에는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10일부터 비상 태세에 돌입하는 등’이 ‘가자지구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는 상황을 상세화하고 있다. 또, (11ㄷ)에서는 ‘강과 도로가 빠져있는 등’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지도’를 상세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연결기능의 접어구성 ‘-는 등’은 후행절의 내용을 상세화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는 등’이 가지는 의미는 연결어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므로, ‘-는 등’은 연결어미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연결어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는 등’은 그 쓰임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약을 가진다. 먼저, ‘-는 등’으로 이루어진 선행절의 서술어에는 ‘-었-’, ‘-겠-’이 결합될 수 없다.

(12) ㄱ.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는 **등**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ㄴ.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렸는 **등**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ㄷ.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겠는 **등**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위의 예를 보면 (12ㄱ)은 어색하지 않지만, ‘-었-’, ‘-겠-’이 결합한 (12ㄴ)과 (12ㄷ)은 어색한 문장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는 등’으로 이루어진 선행절의 서술어는 동사만이 쓰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13) ㄱ. *벽이 깨끗하고 바닥이 아름다운 **등** 그 집은 매우 멋지다.
ㄴ. 새가 지저귀고 꽃이 피는 **등** 봄은 매우 아름답다.

(13)의 예를 보면, 선행절에 형용사가 쓰인 (13ㄱ)은 문장이 어색하지만, 동사가 쓰인 (13ㄴ)은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결기능의 접어구성 '-는 등'은 '등' 뒤에 조사가 결합될 수 없다. 예(14)는 이러한 제약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4) ㄱ. 전투기 오폭과 불발탄 폭발 등으로 인명피해와 가옥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도 계속됐다.
ㄴ.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는 **등**의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14ㄱ)은 의존명사 '등'의 쓰임에서 나타나는 [[-는#등]NP]의 구성에서 '등'의 뒤에 조사 '-의'를 연결시킨 것이고, (14ㄴ)은 연결기능의 접어구성 '-는 등'의 '등' 뒤에 조사 '-의'를 연결시킨 것이다. 두 예를 비교해보면, (14ㄴ)의 경우는 (14ㄱ)과 달리 문장이 어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는 등'에 다른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문장이 어색해진다.

(15) ㄱ.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는 **등**으로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ㄴ.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는 **등**을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ㄷ. *이미 이삿짐 수송용 컨테이너가 들락거리는 **등**{이, 에, 에게, 에서} 많은 주민들은 현실을 인정해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떠날 계획이다.

이처럼 연결기능의 접어구성 '-는 등'은 [[-는#등]NP]와 달리 '-는 등'에 조사가 전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조사의 결합 가능성을 [[-는#등]NP]의 '-는 등'과 접어구성 '-는 등'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 Ⅴ.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등’의 여러 가지 쓰임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기존의 논저에서 언급하고 있는 ‘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등’은 주로 의존명사로 분류되었으며, 그 선행 요소의 제약이 주된 관심사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의존명사 ‘등’의 의미와 쓰임을 살펴보았다. 의존명사 ‘등’의 쓰임은 [[NP#등]조사, -이다], [[NP1#등]NP2], [[-는#등]NP]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등’의 문법화 제2단계를 보여주는 쓰임에 주목하였다. 먼저, 의존명사 ‘등’이 연결기능의 접어구성 ‘-는 등’이 되는 문법화 제2단계를 설명하고, 문법화 제2단계를 거쳐 형성된 ‘-는 등’의 의미와 쓰임을 밝혔다. ‘-는 등’의 의미는 ‘상세화’로 보았으며, 그 쓰임상의 제약으로는 선행절에 ‘-었-’, ‘-겠-’이 결합할 수 없음과 선행절의 서술어는 동사만 쓰일 수 있음, 그리고 조사가 후행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위와 같이 본고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등’의 여러 가지 쓰임이 가지는 관계를 문법화로 설명하고, ‘등’의 의미와 쓰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등’의 쓰임을 의존명사와 연결기능의 접어구성으로 나누었으나 ‘-는 등’의 경우 어떤 쓰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예도 보인다. 따라서 의존명사 ‘등’이 접어구성 ‘-는 등’으로 문법화되는 과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등’이라는 어휘 하나에 대한 것이므로 좀 더 많은 어휘에 대해 연구하는 것 또한 문법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1. 참고자료
*신문
8월 13일『조선일보』.
8월 13일『한겨레신문』.

*사전
국립국어원(1999),『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민수·고영근·이승재·임홍빈(1991),『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신기철·신용철(1975),『새 우리말 큰사전』, 삼화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이희승(1961),『국어대사전』, 민중서관.
허웅(1965),『새한글사전』, 한글학회.

2. 연구 논저
고영근(1989),『國語形態論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미숙(2002),「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수(1955),「국어문법」,『大學國語』, 영화출판사, 145~175면.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983),『歷代韓國文法大系 ① 97』, 탑출판사 재수록]
_____(1960),『國語文法論 硏究』, 통문관.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983),『歷代韓國文法大系 ① 98』, 탑출판사 재수록]
남기심·고영근(1993),『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서정수(1994),『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_____(1996),『(수정 증보판)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안주호(1997),『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안효경(1999),『현대국어 의존명사 연구』, 역락.
이병모(1995),『의존명사의 형태론적 연구』, 학문사.
이익섭·채완(1999),『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이주행(1987),「韓國語 依存名詞의 通時的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현희(1994),『中世國語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정렬모(1946),『신편고등국어문법』, 한글문화사.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983),

『歷代韓國文法大系 ① 62』, 탑출판사 재수록]
채숙희(2002), 「연결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연구」, 『국어연구』 제170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1964a), 『문교부 학교문법 통일에 따른 중학 국문법』, 향문사.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983), 『歷代韓國文法大系 ① 102』, 탑출판사 재수록]
_____(1964b), 『문교부 학교문법 통일에 따른 고등 국문법』, 향문사. [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1983), 『歷代韓國文法大系 ① 103』, 탑출판사 재수록]
황경수(2004), 『한국어 명사 연구』, 청운.